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내일만 바라고 살면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이란 무엇인지요

문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직장생활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 여자 법우입니다. 매일 매일 똑같은 나날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 문득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다보니 매일 매일이 너무 단조롭기도 하고 과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타성에 젖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변화를 시도해야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너무 편하다 보니 배우를 소리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대로 심각합니다. 남들처럼 가정을 갖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되는군요. 조계법당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스님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바라는 행복이란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요. 현실에 만족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 자비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스님 저에게 시원한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능동하고 좀 여유있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자랄 때 배고 늙은 후를 배고 살면서 얼마나 행복을 느꼈습니까? 이것저것 잘못되고 이것저것 걱정하는 것 배고 이것저것 다 배고 나면 행복이란 그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놀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패기가 자기를 즐겁게 행복하게 해줍니다. 마음이란 너무나 광대하고 무변해서 마음이란 이를을 하나 가져보지만 마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씁니까? 그래서 마음을 없는 게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돈도 안내고 쓰는 마음이라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막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마음은 항상 나를 잘 할 만하다라고 유익하게 하고 또는 부부지간도 자식지간도 모두 누구나가 대신 살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파주고 깨달아주고 잠자주고 통취주고 또는 밥 먹는 거 대신 해주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각기 모두 마음을 연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가난하게 하면

일체가 가난해지고

생각을 부자같이 하면

일체가 부자인것 입니다

예전에 어떤 시인이 불을 찾아 밖으로 해매다가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는 북송아꽃이 만발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산너머에는 행복이 있다고 미루어 짐작하는 사람도 많습니. 내 일에는, 내달에는, 내년에는... 이렇게 내일과 저곳에다 희망을 걸고 사람들은 고된 현실을 살아나가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거짓 희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어저께에는 내일로 불리었으며, 그때 오늘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워 보였던 그날이 오늘로 된 지금 사람들은 오늘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다시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과 저곳만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저 먼 어느 곳에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결코 진리를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리는 선지자들에게만 있다고 믿고, 진리는 먼먼 훗날에야 있으며, 저 우주 그 트머리의 어떤 신비스런 나라에만 있다고 믿는 이들은 진리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진 진리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밖에서 불을 찾던 시인은 자기 집에서 그것을 만났습니다. 그것 같습니.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위대한 스승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스승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것처럼 되기 위해서는 나 또한 나의 마음을 되돌려야 합니다. 선은 매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 알고싶어요

문 스님 전 지금 혼란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산다는게 무엇입니까? 죽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고민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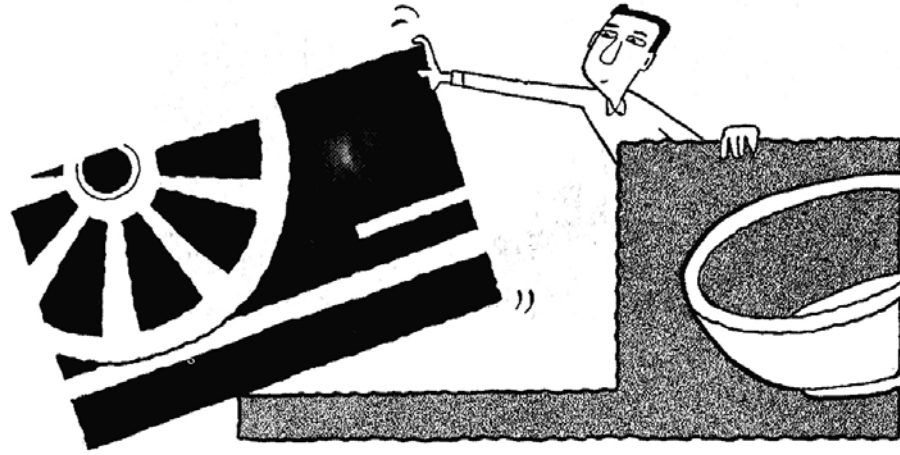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바로 지금 내마음을 통해서 진리 찾아요 무심속 무의세계에서 물질세계 나옵니다

둘러싸여 있었고 자연히 종교나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선(zen)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되었고 가장 제 관심을(?) 쏟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스님계에서 선을 알고 계시겠지요. 선은 매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전혀 모르겠어요. 선에서는 알려져 노력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할 것이라고 또 진리는 단순한 것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항상 변한다고 합니다. 제가 무지한걸까요?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것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도 부질없고... 스님은 라즈니쉬에 대해 아시나요?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은 기독교 신자와 싸웠습니다. 야기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들은 자유롭습니까? 뭔가 중독된것 같아요. 하나님에 천국에... 주절

주절 저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이 아니거든요. 스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표현을 해보죠. 우리들이 걸어다닐 때 한 발 때 어놓으면 한 발은 없어지고 한 발 때 놓으면 한 발 또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발은 무에서 한 발은 유에서 항상 때어놓고 가니까 발자국을 댄 사이가 없죠. 또 전력이 말입니다. 태양계에서 전력을 끌어쓰는데 우리가 그릇을 해왔기 때문에 태양열을 받아서 전력으로 쓸 수 있죠? 장치를 해 놔기 때문에.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써 주장자를 완벽하게 세워 놓지 않는다면 태양열을 받아 쓸려고 장치를 해놓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태양열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는 말도 없고 들어온 게

보이지도 않지만 태양열은 들어와서 전력으로 흘러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빈 발 빈 손. 이 무심속에 무의 세계 정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유의 세계 물질 세계가 나온 것입니다. 검은 지평선도 역시 지·수·화·풍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주를 폭발시켰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보이지 않고,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깜짝할 사이고 우리들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해서 불을 켜고 끄는 것만 알았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건 못 보는 건데 진짜로 빈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빈발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 대천체를 한발로 디렸고 우리들이 딛고 있는 이 발이 부처님 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한 발입니다. 부처님 손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한 손이우요. 그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는 마음공부를 하셔야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력으로써 말을 했고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못 보니까... 우리가 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이다 빈발이다 하는 거. 없다고 단정을 짓지 마시고 여러분이 빈 발 빈손이기 때문에 현실에 보이는 손, 보이는 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 도리를 알게되면 생각이 달라져서 사는 것이 바뀔 겁니다.

제삿밥 · 묘지 꼭 필요하지요

문 저는 현대불교 법공양 페이지를 보고 주인공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스님의 마음 찾는 법문을 그 어떤 법문보다 빨리 쉽게 찾을 수 있게 말씀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감하게 있어 팬을 들었습니다.

1. 죽은 다음 제삿밥을 꼭 먹어야 하나요. 안 먹는 방법은 없나요? 자손이 없는 사람은 제삿밥을 얻어먹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2. 죽은 다음 꼭 묘를 만들어야 합니까? 영토도 같이 있어야 합니까?

답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이전에 한번 이런 말을 해봅시다. 어떤분들은 조상님을 천도하는데 어떠한 관례로 스님계에서는 우주떡 하나 놓고 하느냐고 하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살면서 극난하게 살던 습이 남아서 죽어도 그 습을 때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식을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먹는 거. 살기 위해서 산다는 습이 그냥 두더지처럼 붙어서 자식들한테나 친척들한테나 모두가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매고 돕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유전이 돼서 또 지극한 사람들에 자식들에게 개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일만 되려면, 돌아가시고 백일 안 되도 위패를 바로 살려버려도 다시금 위패를 해서 또 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딘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가난한 사람은 49일이 돼도 100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침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듯이...

타치는 경계가 업보나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는 거기에 벗어나나 못 벗어나느냐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딪혀 오는 모든 것을 나를 일깨워 주기 위한 스승으로 알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송두리째 놓아 버리는 것이다. 무엇이 되었든,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자기가 한 결과므로 누구를 탓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훌쩍 놓아 버려라. 그래야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 돌릴 줄 알아야 한다.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괴로움과 장애, 이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본래 자기가 지어 내린 과보로 생각하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용서하지 말고, 그리고 남에게 미루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려서 자기 스스로 나의 공에 놓을 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 파보, 인과, 유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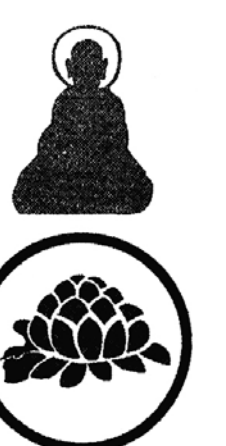
내가 있으면서 상대가 있는 것이니 모든 경계를 너그럽게 모두 내 탓으로 돌려서 놓고 간다면 바로 내 속에서 중생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그대로 천백억 화신으로 나온다.

(그 많은 보살들이 용도에 따라서 관세음이었다가, 지장이 되었다가, 삼신이 되었다가, 지신이 되었다가 의사가 되었다가 하면서 안팎으로 고정되지 않게 다 조절하고, 다 처리하면서 너그럽게 순환을 하게 된다. 그러니 유전성·업보·지옥고·팔자·운명 따위가 다 무너지고 만다.)

내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것, 나쁜 것이 내 앞에 닥친다. 그러므로 누구를, 무엇을 원망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 실사 남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내 탓으로 돌려면서 상대와 나의 주인공이 풀이 아니니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한생각 돌려놓아야 한다. 남이 내게 나쁜 것을 한다 해도 그것은 나의 부족할 때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한다. 또 남이 나를 못살게 괴롭혔다 해도 나로 인해 그에게 수고를 끼쳤으니 오히려 미안한 일이고, 그래서 내 공부 가 익어 가니 감사할 일이다. 그렇지 못하고 상대가 나를 괴롭힌 것이다. 괴롭혔다, 나를 속였다, 내게 해를 가했다는 따위로 생각한다면 실사 공부할 마음을 내었더라도 모두 허사가 된다. 고로 이 공부하는 첫째는 나로부터, 둘째는 나로부터, 셋째도 나로부터, 그렇게 귀결되어 나가야 한다.

꿈이 생시오 생사가 꿈이다. '꿈은 꿈이고 생사는 생사다.' 라고만 안다면 깊은 곳을 알지 못한다. 꿈과 생사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도 경계를 둘로 보지 않아 깬달리지 않을 만큼 되어야 한다. 꿈이 꿈인 줄 알면 놀아나지 않듯이 번뇌가 꿈인 줄 밝히 아는 사람은 번뇌에 속지 않는다.

대상을 높게 볼 것도 없고 낮게 볼 것도 없다. 훌륭하다 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 높다 해서 높은 게 아니며, 낮다 해서 낮은 게 아니니 평등하게 보라. 대상을 내 몸과 같이 보라. 그것이 불심이다. 부처님이 지금 내앞에 계신다 하더라도 높이 보지도 말 것이며 재미 세



끼 한 마리, 풀 한 포기라도 업덩어리지 말아야 한다. 벌레를 보고 경그러다 하고, 똥을 보고 더럽다 하지만 그것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상대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그 형상, 그 마음이 풀이 아니니 주인공 자리에 계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산 위에 올라서서 마음을 내려다보라. 그러면 크다 작다의 구별에 앞서서 평평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생활에서도 그 이치를 활용해 보라. 모든 경계의 높고 낮음, 좋고 심음의 차이가 달라 보일 것이다. 내가 가 모든 경계를 텅 빈 마음으로 대해 보라. 빈 배처럼 되어 보라.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내세운 '나'가 없기에 부딪힘도 고도 없게 될 것이다. 빈 배와 같은 자유인이 되라.

수행 중에는 특히 안으로부터 많은 경계가 일어남을 경계하게 된다. 그러할 때에 그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놓아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 그 경계가 그대로 마가 되는 것이니 바로 중생심 가운데 미묘하게 숨어 있는 '좋은 것을 좋아하는 마음'의 유혹인 것이다. 그러한 유혹은 아주 은밀한 만족감을 낳게 되는 바, 그 마를 물리지가 쉽지 않을 것이니 좋은 경계든 싫은 경계든 집착하는 것은 바로 마에 사로잡힘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 마구니로 나누시기도 한다. 의심하여 속지 말라, 마구니로 보이고 악인으로 보일 때는 "이것은

부처님의 나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가르치시려고 몸 빌고 손 빌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라. 부처님께서는 법계에 두루하며 찾아나고 드십시오. 부처님이 내게 닦는 일체의 경계도 부처님의 나고 드심이라 나를 다지려 합니다. 그러기에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게 말없는 풀 한 포기라도 나를 주장자로 내리치는 스승이라 하는 것이다.

누가 꾸지람을 한다든지 마구 욕을 해댈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로가 다 부처라서 서로 서로 가르치기 위해 부처님이 상대방으로 화하여 하는 일인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처럼 한순간에 실 사이 없이 나고 드시니 법계에 두루하신 것이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다고 하듯이 경계가 있음으로써 진화 발전할 수 있느니 경계는 나를 수행케 하는 힘이다.

일체를 둘로 보지 말라. 꿈이든 생사든 환상이든 부처가 나오든 귀신이 나오든 일체를 둘로 보지 않아야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항복을 받을 수 있다. 일체를 나로 보게 되면 모든 경계에서 놓여 난다. 일체의 몸짓, 일체의 모습을 다 나라고 보아 내게 수렴이 될 때에 무심이 되고 물러서지 않게 된다.

협찬: 주인공